



## 꿈에서 깨어나다

륜회하고 전생한것이 몇천년이런가,  
오고 또 가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공명과 리록(利祿)은 길지 않고  
세도흥쇠는 모두 하늘에  
달린것이로다.

생명은 본래 하늘의 신이라,  
인생의 성공실패는 구름과 같네.  
옳고그름은 전생의 원이라,  
법을 얻어 수수께끼를 풀고 하늘에  
올라가네.



# 연변박해진상

## 제 1 기



진상을 찾을지어다  
천지간은 망망한데 세인은 어 데로 갈 가  
미혹 속에서 길을 모르는데 지남은 진상에 있네  
빈부는 마찬가지로 큰 난은 피할 길 없네  
그물에 열린 곳 있으니 빨리빨리 진상을 찾을지어다



## 꿈에서 깨어나다

륜회하고 전생한것이 몇천년이런가,  
오고 또 가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공명과 리록(利祿)은 길지 않고  
세도흥쇠는 모두 하늘에  
달린것이로다.

생명은 본래 하늘의 신이라,  
인생의 성공실패는 구름과 같네.  
옳고그름은 전생의 원이라,  
법을 얻어 수수께끼를 풀고 하늘에  
올라가네.



# 연변박해진상

## 제 1 기



진상을 찾을지어다  
천지간은 망망한데 세인은 어 데로 갈 가  
미혹 속에서 길을 모르는데 지남은 진상에 있네  
빈부는 마찬가지로 큰 난은 피할 길 없네  
그물에 열린 곳 있으니 빨리빨리 진상을 찾을지어다

## 목 록

파룬궁 15 년 로정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사색 .....	3
길림성 연변지구에서 파룬궁 학원들에 대한 일부 박해정황 .....	6
어머니는 박해를 받고 딸아이는 실성하다 .....	12
왕청현 국보악경들이 리문지를 불법로동교양 시키다 .....	19
왕청현 대법제자 곡흥무(曲兴武)가 불법로동교양 판결을 받다 .....	24
룡정시 대법제자 석청송(石青松)이 랍치당하다..	24
연변지구에서 근간에 또 여러명의 파룬궁 학원들이 랍치당하였다.....	25
주아진(朱雅珍)이 로교소에서 박해를 받아 실성하다.....	26
한국에서 성대한 집회를 열어 민중의 중공 탈출을 성원하다 .....	31
세인이 각성하여 대법을 지향하다 .....	32
《9 평》이 천만을 넘는 퇴당 물결을 일으키다 ....	33
탈당탈단탈대방법.....	34
꿈에서 깨어나다.....	36



## 당신에게 한쌍의 자유의 날개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의

전자우편으로

dip@earthlink.net 에 하나의 빈 우편을 보내면 10 분내에 동태망의 현재 접속 가능한 인터넷 주소를 받을수 있고 안전하게 봉쇄된 인터넷을 방문할수 있다. 주의: 동태망 근간의 주소 https 는 암호가 달린 주소이며 볼때 튀어 나오는 대화틀(对话框)에서 “예” 와 “확인” 을 누르면 비밀로 방문할수 있다.

일생일세의 길은 멀고도 먼데  
그 누가 복과 벼슬이  
완전할것을 원하지 않겠는가  
대법을 선히 대하면  
복을 받는바  
길상화목과 복은  
끝이 없도다.



## 목 록

파룬궁 15 년 로정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사색 .....	3
길림성 연변지구에서 파룬궁 학원들에 대한 일부 박해정황 .....	6
어머니는 박해를 받고 딸아이는 실성하다 .....	12
왕청현 국보악경들이 리문지를 불법로동교양 시키다 .....	19
왕청현 대법제자 곡흥무(曲兴武)가 불법로동교양 판결을 받다 .....	24
룡정시 대법제자 석청송(石青松)이 랍치당하다..	24
연변지구에서 근간에 또 여러명의 파룬궁 학원들이 랍치당하였다.....	25
주아진(朱雅珍)이 로교소에서 박해를 받아 실성하다.....	26
한국에서 성대한 집회를 열어 민중의 중공 탈출을 성원하다 .....	31
세인이 각성하여 대법을 지향하다 .....	32
《9 평》이 천만을 넘는 퇴당 물결을 일으키다 ....	33
탈당탈단탈대방법.....	34
꿈에서 깨어나다.....	36



## 당신에게 한쌍의 자유의 날개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의

전자우편으로

dip@earthlink.net 에 하나의 빈 우편을 보내면 10 분내에 동태망의 현재 접속 가능한 인터넷 주소를 받을수 있고 안전하게 봉쇄된 인터넷을 방문할수 있다. 주의: 동태망 근간의 주소 https 는 암호가 달린 주소이며 볼때 튀어 나오는 대화틀(对话框)에서 “예” 와 “확인” 을 누르면 비밀로 방문할수 있다.

일생일세의 길은 멀고도 먼데  
그 누가 복과 벼슬이  
완전할것을 원하지 않겠는가  
대법을 선히 대하면  
복을 받는바  
길상화목과 복은  
끝이 없도다.





# 탈 당 탈 단 탈 대 방 법

(가명, 필명도 마찬가지로 유효)

\* 전자우편으로 성명을 발표

news@epochtimes.com

\* 탈당전화:001-416-361-9895, 001-888-892-8757

\* 탈당팩스:001-702-248-0599, 001-510-372-0176

\* 인터넷에 올라갈수 없는 사람은 성명을 공공장소에 붙친다.

제시: 국제직접전화가 통하지 않은 대륙인사들은 탈당 전화를 걸때 IP 전화로 해야 한다. (망통[网通]은 먼저 17909 를 입력하고 전신[电信]은 먼저 17969 를 입력하여야 하며 철통[铁通]은 먼저 17991 를 입력해야 한다.) 핸드폰 IP 전화 (중국이동은 먼저 17951 를 입력해야 하고 련통은 먼저 17911 를 입력해야 하며 소령통[小灵通]은 먼저 17909 를 입력해야 한다.)

\*당신은 가능하게 나는 사상중에서 일찍 탈퇴하였고 또한 당비도 바치지 않는다고 말할것이다. 그것은 다 섬에 넣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혈기 앞에서 하늘에 대해 독한 선서를 할때 당신은 일생의 생명을 모두 사악한 당에 바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공개적인 방식을 취하여 탈출하는 행위의 표시가 있어야 만이 이렇게 큰 독한 선서를 없앨수 있으며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평안을 보증할 수 있다!

34

# 탈 당 탈 단 탈 대 방 법

(가명, 필명도 마찬가지로 유효)

\* 전자우편으로 성명을 발표

news@epochtimes.com

\* 탈당전화:001-416-361-9895, 001-888-892-8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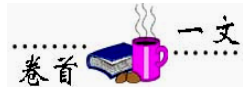
\* 탈당팩스:001-702-248-0599, 001-510-372-0176

\* 인터넷에 올라갈수 없는 사람은 성명을 공공장소에 붙친다.

제시: 국제직접전화가 통하지 않은 대륙인사들은 탈당 전화를 걸때 IP 전화로 해야 한다. (망통[网通]은 먼저 17909 를 입력하고 전신[电信]은 먼저 17969 를 입력하여야 하며 철통[铁通]은 먼저 17991 를 입력해야 한다.) 핸드폰 IP 전화 (중국이동은 먼저 17951 를 입력해야 하고 련통은 먼저 17911 를 입력해야 하며 소령통[小灵通]은 먼저 17909 를 입력해야 한다.)

\*당신은 가능하게 나는 사상중에서 일찍 탈퇴하였고 또한 당비도 바치지 않는다고 말할것이다. 그것은 다 섬에 넣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혈기 앞에서 하늘에 대해 독한 선서를 할때 당신은 일생의 생명을 모두 사악한 당에 바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공개적인 방식을 취하여 탈출하는 행위의 표시가 있어야 만이 이렇게 큰 독한 선서를 없앨수 있으며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평안을 보증할 수 있다!

34



파룬궁 15 년 로정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사색

【명혜망】 1992년부터 전해지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파룬궁은 15년을 지나왔다. 15년 동안 사람들은 파룬궁이 세계에 가져다 준 건강과 도덕의 승화를 보았으며 더욱이 수련인들이 《진, 선, 인》을 실천하는 로정을 보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사색의 여운을 남겨주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수천수만의 사람들중에는 련공을 통하여 건강을 얻고 심지어 사망변두리에서 걸어 나온 이들이 비일비재하다. 거의 매 한 명의 수련인마다 모두 한 권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책을 쓸 수 있을 것이다. 필자도 련공전에는 몇 달에 한번씩 앓곤 하였는데 련공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7, 8년 동안 앓은 적이 없었다. 또한 신변의 련공인들도 남녀로소를 불문하고 거의 모두 이러한데 일년 내내 아주 건강하다. 력사상, 중국에서는 편작(扁鹊), 손사막(孙思邈), 장중경(张仲景), 화타(华佗) 등 걸출한 의학가들이 출현하였었다. 그들의 의술이 높아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이야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비록 한이 있지만 중국사람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담론할 때마다 아주 큰 자호감을 느끼곤 한다.

그렇다면 같은 안광으로 파룬궁 창시자인

3



파룬궁 15 년 로정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사색

【명혜망】 1992년부터 전해지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파룬궁은 15년을 지나왔다. 15년 동안 사람들은 파룬궁이 세계에 가져다 준 건강과 도덕의 승화를 보았으며 더욱이 수련인들이 《진, 선, 인》을 실천하는 로정을 보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사색의 여운을 남겨주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수천수만의 사람들중에는 련공을 통하여 건강을 얻고 심지어 사망변두리에서 걸어 나온 이들이 비일비재하다. 거의 매 한 명의 수련인마다 모두 한 권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책을 쓸 수 있을 것이다. 필자도 련공전에는 몇 달에 한번씩 앓곤 하였는데 련공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7, 8년 동안 앓은 적이 없었다. 또한 신변의 련공인들도 남녀로소를 불문하고 거의 모두 이러한데 일년 내내 아주 건강하다. 력사상, 중국에서는 편작(扁鹊), 손사막(孙思邈), 장중경(张仲景), 화타(华佗) 등 걸출한 의학가들이 출현하였었다. 그들의 의술이 높아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이야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비록 한이 있지만 중국사람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담론할 때마다 아주 큰 자호감을 느끼곤 한다.

그렇다면 같은 안광으로 파룬궁 창시자인

3

리홍지선생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사고해보다면 중국사람들은 오늘 더욱 응당 자호감을 느껴야 하며 응당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한 미국교수가 말하기를: 만일 사람들이 《전법륜》을 이해할수만 있다면 그들은 곧 의학 노벨상은 응당 리홍지선생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세히 생각해보면 어느 노벨 의학상 수상자가 이토록 광범한 인류에게 이토록 낮은 비용으로 이토록 중대한 의학공헌을 한적이 있었는가?

파룬궁 학원들을 접촉해본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이 아주 진실하고 선량하며 도덕수준이 높음을 감수하였을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길이 멀면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날이 길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참혹한 박해는 이미 8년을 지속해왔고 파룬궁 학원들은 의연히 거대한 압력을 감당하고 있으나 그들은 아직도 그토록 평화롭고 그토록 선량하다.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가장 인상이 깊은 것은 의연히 그들의 선량한 마음과 웃는 얼굴이다.

이는 한 단체의 천리를 믿는 사람들이다. 마음속으로 《진, 선, 인》을 미워하고 선량한 수련인들을 적대시하면 사람들에게 해롭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하여 그들은 진상을 이야기 하는 것을 견지한다. 그들은 또한 《진, 선, 인》을 타격하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박해를 진행하는 악인악행은 천리에 용납되지

리홍지선생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사고해보다면 중국사람들은 오늘 더욱 응당 자호감을 느껴야 하며 응당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한 미국교수가 말하기를: 만일 사람들이 《전법륜》을 이해할수만 있다면 그들은 곧 의학 노벨상은 응당 리홍지선생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세히 생각해보면 어느 노벨 의학상 수상자가 이토록 광범한 인류에게 이토록 낮은 비용으로 이토록 중대한 의학공헌을 한적이 있었는가?

파룬궁 학원들을 접촉해본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이 아주 진실하고 선량하며 도덕수준이 높음을 감수하였을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길이 멀면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날이 길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참혹한 박해는 이미 8년을 지속해왔고 파룬궁 학원들은 의연히 거대한 압력을 감당하고 있으나 그들은 아직도 그토록 평화롭고 그토록 선량하다.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가장 인상이 깊은 것은 의연히 그들의 선량한 마음과 웃는 얼굴이다.

이는 한 단체의 천리를 믿는 사람들이다. 마음속으로 《진, 선, 인》을 미워하고 선량한 수련인들을 적대시하면 사람들에게 해롭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하여 그들은 진상을 이야기 하는 것을 견지한다. 그들은 또한 《진, 선, 인》을 타격하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박해를 진행하는 악인악행은 천리에 용납되지

《저도 탈당하겠으니 저를 도와서 성명을 발표해주시오. 공산당이 와해되는 그날이면 꼭 잘 축하해야 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도 파룬궁을 련마하겠습니다.》

## 《9 평》이 천만을 넘는 퇴당 물결을 일으키다



《9 평공산당》 책은 중공사당의 본질을 심각하게 폭로하여 중국에서 강대한 중공악당에서 탈출하는 거대한 조류를 일으켰다. 2007 년 7 월 7 일까지 이미 2353 만에 달하는 중국민중이 해외 대기원 인터넷을 통하여 중공의 당, 단, 대를 탈퇴하였는데 그 중에는 중공당군 고층내의 당원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善待大法一念 天賜幸福平安



《저도 탈당하겠으니 저를 도와서 성명을 발표해주시오. 공산당이 와해되는 그날이면 꼭 잘 축하해야 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도 파룬궁을 련마하겠습니다.》

## 《9 평》이 천만을 넘는 퇴당 물결을 일으키다



《9 평공산당》 책은 중공사당의 본질을 심각하게 폭로하여 중국에서 강대한 중공악당에서 탈출하는 거대한 조류를 일으켰다. 2007 년 7 월 7 일까지 이미 2353 만에 달하는 중국민중이 해외 대기원 인터넷을 통하여 중공의 당, 단, 대를 탈퇴하였는데 그 중에는 중공당군 고층내의 당원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善待大法一念 天賜幸福平安





참가하였다.

김만성(왼쪽)은 인터뷰에 응하여 《중공은 필연코 멸망할 것이다, 신의 존재를 부인하면 꼭 오래가지



못한다.》고 표명하였다.

안석원 (오른쪽) 은  
기자의 인터뷰에 응하여  
《중공은 용서할수 없는  
정권》이라고 표시하였다.

### 【세인각성】

## 세인이 각성하여 대범을 지향하다

장춘시 공안국의 모경찰은 《파룬궁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 사람을 붙잡을 때 우에서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과 10 분 이상의 담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담화시간이 길어지면 그들에게 설득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감히 그들을 붙잡지도 못합니다. 이유가 없으니까요. 련공하여 신체가 건강해지는 것이 법을 위반한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사람을 붙잡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후에 파룬궁을 붙잡은 사람들은 다 청산당할 것입니다. 일부 경찰들은 총명해져서 파룬궁을 붙잡는 일이면 다 피합니다. 》

대경 모 기업 부총경리가 대법제자에게 말하기를:

참가하였다.

김만성(왼쪽)은 인터뷰에 응하여 《중공은 필연코 멸망할 것이다, 신의 존재를 부인하면 꼭 오래가지



못한다.》고 표명하였다.

안석원 (오른쪽) 은  
기자의 인터뷰에 응하여  
《중공은 용서할수 없는  
정권》이라고 표시하였다.

### 【세인각성】

## 세인이 각성하여 대범을 지향하다

장춘시 공안국의 모경찰은 《파룬궁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 사람을 붙잡을 때 우에서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과 10 분 이상의 담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담화시간이 길어지면 그들에게 설득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감히 그들을 붙잡지도 못합니다. 이유가 없으니까요. 련공하여 신체가 건강해지는 것이 법을 위반한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사람을 붙잡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후에 파룬궁을 붙잡은 사람들은 다 청산당할 것입니다. 일부 경찰들은 총명해져서 파룬궁을 붙잡는 일이면 다 피합니다. 》

대경 모 기업 부총경리가 대법제자에게 말하기를:

못함을 알고 있다. 중공의 죄악은 이미 자신을 사망지 문에다 밀어 넣었다. 하여 그들은 사람들더러 박해의 무리를 멀리 하라고 하며 중공에서 탈출하라고 한다.

그들이 거리에 나가서 진상자료를 배포하든, 탈당을 권고하든 모두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이며 모두 사람들에게 광명한 미래를 가져다 주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전달한 정보가 나중에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대만 5천명 파룬궁 학원들이 《5월13일세계 파룬따파날》이라는 글자형태로 대렬을 지어 대법이 15년간 널리 전함을 축하하였다

사람들은 사색하고 있다: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의연히 지속되고 있는데 어떤 힘이 그들더러

못함을 알고 있다. 중공의 죄악은 이미 자신을 사망지 문에다 밀어 넣었다. 하여 그들은 사람들더러 박해의 무리를 멀리 하라고 하며 중공에서 탈출하라고 한다.

그들이 거리에 나가서 진상자료를 배포하든, 탈당을 권고하든 모두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이며 모두 사람들에게 광명한 미래를 가져다 주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전달한 정보가 나중에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대만 5천명 파룬궁 학원들이 《5월13일세계 파룬따파날》이라는 글자형태로 대렬을 지어 대법이 15년간 널리 전함을 축하하였다

사람들은 사색하고 있다: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의연히 지속되고 있는데 어떤 힘이 그들더러

오늘까지 견지할 수 있게 하였는가?

파룬궁이 걸어온 15년은 바른 믿음(正信)의 휘황함을 펼쳐 보였으며 중공의 박해는 필연 적으로 실패한다는 것을 예고하였다. 그러나 이 한차례 박해는 또한 인간의 양지와 정의에 대한 시금석(試金石)으로도 되게 하였다.



## 길림성 연변지구에서 파룬궁 학원들에 대한 일부 박해정황

【명혜망2007년3월24일】 1999년7월20일부터 중공 사당두목 강택민은 손안의 권력을 리용하여 파룬궁과 파룬궁 학원들에게 《명예상에서 더럽히고 경제상에서 절단하고 육체상에서 소멸》하는 피비린 박해를 실시하였다. 거의 8년간 사당은 각 가도 판사처, 파출소, 공안국, 로교소, 검찰원, 법원 등을 통제하여 박해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파룬궁 학원들에게 처자가 흩어지고 집안이 망하고 사람이 죽는 인간 비극을 조성하였다.

이 몇 년간의 박해중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길시 국보대대와 각 파출소 경찰들의 흑형의 시달림속에서 박해로 사망한 파룬궁 학원들에 대한

오늘까지 견지할 수 있게 하였는가?

파룬궁이 걸어온 15년은 바른 믿음(正信)의 휘황함을 펼쳐 보였으며 중공의 박해는 필연 적으로 실패한다는 것을 예고하였다. 그러나 이 한차례 박해는 또한 인간의 양지와 정의에 대한 시금석(試金石)으로도 되게 하였다.



## 길림성 연변지구에서 파룬궁 학원들에 대한 일부 박해정황

【명혜망2007년3월24일】 1999년7월20일부터 중공 사당두목 강택민은 손안의 권력을 리용하여 파룬궁과 파룬궁 학원들에게 《명예상에서 더럽히고 경제상에서 절단하고 육체상에서 소멸》하는 피비린 박해를 실시하였다. 거의 8년간 사당은 각 가도 판사처, 파출소, 공안국, 로교소, 검찰원, 법원 등을 통제하여 박해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파룬궁 학원들에게 처자가 흩어지고 집안이 망하고 사람이 죽는 인간 비극을 조성하였다.

이 몇 년간의 박해중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길시 국보대대와 각 파출소 경찰들의 흑형의 시달림속에서 박해로 사망한 파룬궁 학원들에 대한

경고하는데 당신들이 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천리와 민심을 위반하는 것이다. 누구의 명령이거나 지시던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흐리멍덩하게 강씨의 속죄양이 되지 말고 자신을 위하여 한 갈래 뒤길을 남겨두라! 공산당이 망할때 그 악보를 함께 받지 말기를 바란다.

## 한국에서 성대한 집회를 열어 민중의 중공 탈출을 성원하다



2007년 5월 27일, 2천 3백만 중국민중이 중공의 관련 조직에서 탈출한 것을 성원하기 위하여 한국 탈당복무중심과 여러단체는 한국 남부의 제일 큰 중공업도시인 울산시에서 성대한 집회를 거행하였다. 한국 파룬따파 협회대표 원 울산시 의회의장 김성만, 원 울산시 중구구위원 안석원도 이번 집회유행활동에

경고하는데 당신들이 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천리와 민심을 위반하는 것이다. 누구의 명령이거나 지시던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흐리멍덩하게 강씨의 속죄양이 되지 말고 자신을 위하여 한 갈래 뒤길을 남겨두라! 공산당이 망할때 그 악보를 함께 받지 말기를 바란다.

## 한국에서 성대한 집회를 열어 민중의 중공 탈출을 성원하다



2007년 5월 27일, 2천 3백만 중국민중이 중공의 관련 조직에서 탈출한 것을 성원하기 위하여 한국 탈당복무중심과 여러단체는 한국 남부의 제일 큰 중공업도시인 울산시에서 성대한 집회를 거행하였다. 한국 파룬따파 협회대표 원 울산시 의회의장 김성만, 원 울산시 중구구위원 안석원도 이번 집회유행활동에



석박동의를 맞도록 하였는가? 묻자 로교소관리과의  
공작인원은 아주 무례하게 《문서를 보내든지 말든지,  
문서를 어디로 보낸단 말인가? 당신들에게 말할  
필요도 없다. 당신들은 어쩔셈인가? 집에 가서 기다리  
라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대답하였다.

가족들은 듣고 나서 더욱 분개하였는데 이  
집법인원들은 왜 이 지경으로 다른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관계하지 않는단 말인가? 사람이 학대를 받아  
실성할 정도에 이르렀는데 반 푼의 측은한 마음도  
없단 말인가? 만일 그들 자신의 친인이라면 그들은  
이렇게 하겠는가?

현재 로교소 감옥에는 아직도  
많은 파룬궁학원 들이 감금되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좋은 사람이며  
지금 참혹한 박해를 받고 있으며  
처지가 아주 험악하다.



여기서 모든 정의가 있는 인사들이 지원의 손길을  
뻗칠것을 호소한다. 공동히 박해를 제지하고 무조건적  
으로 불법 감금된 파룬궁 학원들을 석방하라. 희망하  
건대 경찰들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정신을 차려  
더 이상 악당의 박해공구가 되지 말고 파룬궁 학원을  
선하게 대하여 광명한 미래를 쟁취하라.

동시에 현재 의연히 꺼리낌없이 강씨 유망집단을  
따라 대법학원을 박해하는 불법인원들에게 정중히

석박동의를 맞도록 하였는가? 묻자 로교소관리과의  
공작인원은 아주 무례하게 《문서를 보내든지 말든지,  
문서를 어디로 보낸단 말인가? 당신들에게 말할  
필요도 없다. 당신들은 어쩔셈인가? 집에 가서 기다리  
라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대답하였다.

가족들은 듣고 나서 더욱 분개하였는데 이  
집법인원들은 왜 이 지경으로 다른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관계하지 않는단 말인가? 사람이 학대를 받아  
실성할 정도에 이르렀는데 반 푼의 측은한 마음도  
없단 말인가? 만일 그들 자신의 친인이라면 그들은  
이렇게 하겠는가?

현재 로교소 감옥에는 아직도  
많은 파룬궁학원 들이 감금되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좋은 사람이며  
지금 참혹한 박해를 받고 있으며  
처지가 아주 험악하다.



여기서 모든 정의가 있는 인사들이 지원의 손길을  
뻗칠것을 호소한다. 공동히 박해를 제지하고 무조건적  
으로 불법 감금된 파룬궁 학원들을 석방하라. 희망하  
건대 경찰들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정신을 차려  
더 이상 악당의 박해공구가 되지 말고 파룬궁 학원을  
선하게 대하여 광명한 미래를 쟁취하라.

동시에 현재 의연히 꺼리낌없이 강씨 유망집단을  
따라 대법학원을 박해하는 불법인원들에게 정중히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연길시에는 양종방(杨仲芳)、  
송영화(宋永华)、박세호(朴世浩)、류일파(刘一波)、  
학영강(郝迎强)、지휘문(池辉文)、형숙화(荆淑  
花)、강계영(姜桂荣)、림세웅(林世雄) ; 등이 있  
고 기타 각 현시에는 소국병(肖国兵)(안도현)、  
온숙금(温淑琴)(왕청현)、왕철송(王铁松)(안도현)、  
장옥란(张玉兰)(안도현)등이 있다. 그리고 박해가  
시작된 후, 중공의 사악한 정권이 파룬궁 학원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와 위협 중에서 정부관원과 경찰의  
장시간의 교란과 정신압력으로 사망한 파룬궁 학원은  
얼마나 되는지 아직 통계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우리들이 각종 도경을 통하여 알게 되는데 의하면  
1999 년 10 월달, 파룬궁 학원 림세웅이 불법으로  
로동교양판결을 받은 후부터 시작하여 부분적인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연길시에 만도 300 여명이  
각종 근거 없는 죄명으로 불법로동교양, 불법판결을  
받았는데 그중 김덕준(金德俊)、림세웅(林世雄)(박해로  
사망)、신연준(辛延俊)、곽배준(郭培俊)、채복신(蔡  
福臣)、손희(孙希)、리향란(李香兰)、진광무(陈光武)  
、학영강(郝迎强)(박해로 사망)、송영화(宋永华)(박해  
로사망)、장휘(张辉)、고연(高艳)、박홍권(朴洪权)、  
김명(金明) 등 30 여명 파룬궁 학원들이 불법 판결을  
받았으며 불법적으로 압치당하고 불법구류된 파룬궁  
학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할 방법이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연길시에는 양종방(杨仲芳)、  
송영화(宋永华)、박세호(朴世浩)、류일파(刘一波)、  
학영강(郝迎强)、지휘문(池辉文)、형숙화(荆淑  
花)、강계영(姜桂荣)、림세웅(林世雄) ; 등이 있  
고 기타 각 현시에는 소국병(肖国兵)(안도현)、  
온숙금(温淑琴)(왕청현)、왕철송(王铁松)(안도현)、  
장옥란(张玉兰)(안도현)등이 있다. 그리고 박해가  
시작된 후, 중공의 사악한 정권이 파룬궁 학원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와 위협 중에서 정부관원과 경찰의  
장시간의 교란과 정신압력으로 사망한 파룬궁 학원은  
얼마나 되는지 아직 통계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우리들이 각종 도경을 통하여 알게 되는데 의하면  
1999 년 10 월달, 파룬궁 학원 림세웅이 불법으로  
로동교양판결을 받은 후부터 시작하여 부분적인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연길시에 만도 300 여명이  
각종 근거 없는 죄명으로 불법로동교양, 불법판결을  
받았는데 그중 김덕준(金德俊)、림세웅(林世雄)(박해로  
사망)、신연준(辛延俊)、곽배준(郭培俊)、채복신(蔡  
福臣)、손희(孙希)、리향란(李香兰)、진광무(陈光武)  
、학영강(郝迎强)(박해로 사망)、송영화(宋永华)(박해  
로사망)、장휘(张辉)、고연(高艳)、박홍권(朴洪权)、  
김명(金明) 등 30 여명 파룬궁 학원들이 불법 판결을  
받았으며 불법적으로 압치당하고 불법구류된 파룬궁  
학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할 방법이

었다.

2000년 11월달부터 시작하여 연변주위서기 전학인(田学仁)과 연길시 선전부부장 한룡근(韩龙根)、진옥강(陈玉江) 등의 직접적인 지시하에서 원 연길시 610 판공실의 두목 박남수(朴南洙)와 호효연(胡晓燕) 등의 책략으로 연길시에서 모두 4기의 강제 세뇌반을 꾸렸는데 제1기에 모두 40여명을 랍치하여 박해하고 제2기에는 30여명을 랍치하였는데 박해는 번마다 더 엄중하였으며 수단은 갈수록 더 악독하였다. 수련을 견지하는 파룬궁 학원에 대해서는 연길시 수용소에 보내어 20여가지 혹형으로 박해하고 괴롭혔으며 로동교양을 보내는 수단으로 진일보의 박해를 실시하였다. 2000년 11월、12월; 2001년 11월 16일、12월 6일 네 차례 세뇌반에서 총 200여명의 파룬궁 학원을 랍치하였다.

2000년의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연변 각 현시에서는 파룬궁 학원에 대한 박해를 부단히 승급시켰는데 2002년 상반기에는 발광적인 정도에 이르렀다. 당시 불법으로 체포된 파룬궁 학원은 길림성 각 로교소에 더 넣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었다. 2001년 3월 좌우 연변지구에는 이미 근 100명에 달하는 남 파룬궁 학원들이 비법적으로 연변 로교소에 감금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연변 각 지구의 녀 파룬궁 학원들을 셈치지 않은 숫자이다.

었다.

2000년 11월달부터 시작하여 연변주위서기 전학인(田学仁)과 연길시 선전부부장 한룡근(韩龙根)、진옥강(陈玉江) 등의 직접적인 지시하에서 원 연길시 610 판공실의 두목 박남수(朴南洙)와 호효연(胡晓燕) 등의 책략으로 연길시에서 모두 4기의 강제 세뇌반을 꾸렸는데 제1기에 모두 40여명을 랍치하여 박해하고 제2기에는 30여명을 랍치하였는데 박해는 번마다 더 엄중하였으며 수단은 갈수록 더 악독하였다. 수련을 견지하는 파룬궁 학원에 대해서는 연길시 수용소에 보내어 20여가지 혹형으로 박해하고 괴롭혔으며 로동교양을 보내는 수단으로 진일보의 박해를 실시하였다. 2000년 11월、12월; 2001년 11월 16일、12월 6일 네 차례 세뇌반에서 총 200여명의 파룬궁 학원을 랍치하였다.

2000년의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연변 각 현시에서는 파룬궁 학원에 대한 박해를 부단히 승급시켰는데 2002년 상반기에는 발광적인 정도에 이르렀다. 당시 불법으로 체포된 파룬궁 학원은 길림성 각 로교소에 더 넣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었다. 2001년 3월 좌우 연변지구에는 이미 근 100명에 달하는 남 파룬궁 학원들이 비법적으로 연변 로교소에 감금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연변 각 지구의 녀 파룬궁 학원들을 셈치지 않은 숫자이다.

시간을 끌면서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하였다.

5월 29일, 주아진의 가족은 또다시 로교소로 찾아갔다. 그들은 직접 로교소 소장 전모와 4대대장 장모를 찾았다. 그들은 주아진은 장춘의 가장 권위있는 정신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정신치매라고 하면서 가족에게 보석하여 치료하는 신청서에 사인을 하도록 하였다. 가족에서는 로교소에서 즉시 사람을 석방할 것을 강렬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로교소에서는 《법률의 순서를 밟아야 한다, 필시 상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구실로 사람을 놓아주지 않고 가족의 의견을 막아버리고 또 다음 주일로 미루면서 돌아가 기다리라고 하였다.

이튿날, 그녀의 남편과 아들은 경우를 따지기로 결정하고 먼저 길림성 사법청사로 찾아가서 주아진이 박해를 받은 진실한 정황을 반영하였다. 사법국의 한 백씨 책임자가 말하기를 《문서가 오면 인차 허가할 것이니 우리는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뒤이어 그들은 또 성시교구 검찰원 로교검사과를 찾았는데 한 석씨 과장이 그들을 접견하였다. 그도 《만일 정황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인츠 허가할 것이며 절대로 시간을 끌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뒤이어 가족은 그날로 로교소 관리과의 유관 인원에게 전화를 걸어 문서를 검찰기관에 보내어

시간을 끌면서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하였다.

5월 29일, 주아진의 가족은 또다시 로교소로 찾아갔다. 그들은 직접 로교소 소장 전모와 4대대장 장모를 찾았다. 그들은 주아진은 장춘의 가장 권위있는 정신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정신치매라고 하면서 가족에게 보석하여 치료하는 신청서에 사인을 하도록 하였다. 가족에서는 로교소에서 즉시 사람을 석방할 것을 강렬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로교소에서는 《법률의 순서를 밟아야 한다, 필시 상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구실로 사람을 놓아주지 않고 가족의 의견을 막아버리고 또 다음 주일로 미루면서 돌아가 기다리라고 하였다.

이튿날, 그녀의 남편과 아들은 경우를 따지기로 결정하고 먼저 길림성 사법청사로 찾아가서 주아진이 박해를 받은 진실한 정황을 반영하였다. 사법국의 한 백씨 책임자가 말하기를 《문서가 오면 인차 허가할 것이니 우리는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뒤이어 그들은 또 성시교구 검찰원 로교검사과를 찾았는데 한 석씨 과장이 그들을 접견하였다. 그도 《만일 정황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인츠 허가할 것이며 절대로 시간을 끌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뒤이어 가족은 그날로 로교소 관리과의 유관 인원에게 전화를 걸어 문서를 검찰기관에 보내어



하자 옆에 있던 4, 5 명의 경찰들이 백방으로 가로막으면서 통보할념을 하지 않고 대문어구에서 기다리라고 하였다. 그 며칠 동북의 날씨는 특별히 싸늘하였는데 경상적으로 큰 비가 쏟아졌다. 가족은 밖에서 추위에 부들부들 떨면서 비를 무릅쓰고 대문어구에서 왔다갔다하였는데 한 시간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다. 가족에서 경찰에게 날씨가 너무 추워 당신들의 방에 들어가 몸을 녹일 수 없는 가고 묻자 경찰은 차갑게 웃으면서 《기다리지 못하겠으면 돌아가라.》라고 하였다.

주아진의 가족들은 분개하여 《당신들은 인민의 경찰이요? 인민의 경찰이라면 응당 인민을 위해 생각해야지 않겠소? 만일 당신들이 당장 우리가 소장을 만날 수 없게 한다면 당신들이 책임을 질 수 있소? 만일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다는 사인을 한다면 우리는 인차 떠나겠소.》

한동안 지나서야 로교소 소장 전모가 대문어구에 나타났는데 그녀는 이미 주아진더러 진찰을 받도록 하였는데 가족에서는 다음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와서 결과를 알아보라고 하였다.

한주일이 지나가고 수요일이 다가왔다. 주아진의 가족들은 시간에 맞춰 로교소로 찾아갔다. 검사 결과는 치매였는데 가족들은 로교소에서 사람을 석방할 것을 강렬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로교소에서는

하자 옆에 있던 4, 5 명의 경찰들이 백방으로 가로막으면서 통보할념을 하지 않고 대문어구에서 기다리라고 하였다. 그 며칠 동북의 날씨는 특별히 싸늘하였는데 경상적으로 큰 비가 쏟아졌다. 가족은 밖에서 추위에 부들부들 떨면서 비를 무릅쓰고 대문어구에서 왔다갔다하였는데 한 시간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다. 가족에서 경찰에게 날씨가 너무 추워 당신들의 방에 들어가 몸을 녹일 수 없는 가고 묻자 경찰은 차갑게 웃으면서 《기다리지 못하겠으면 돌아가라.》라고 하였다.

주아진의 가족들은 분개하여 《당신들은 인민의 경찰이요? 인민의 경찰이라면 응당 인민을 위해 생각해야지 않겠소? 만일 당신들이 당장 우리가 소장을 만날 수 없게 한다면 당신들이 책임을 질 수 있소? 만일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다는 사인을 한다면 우리는 인차 떠나겠소.》

한동안 지나서야 로교소 소장 전모가 대문어구에 나타났는데 그녀는 이미 주아진더러 진찰을 받도록 하였는데 가족에서는 다음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와서 결과를 알아보라고 하였다.

한주일이 지나가고 수요일이 다가왔다. 주아진의 가족들은 시간에 맞춰 로교소로 찾아갔다. 검사 결과는 치매였는데 가족들은 로교소에서 사람을 석방할 것을 강렬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로교소에서는

연변지구의 자치주소재지 연길시에서 각 파출소는 연길시 공안국 전문 파룬궁을 박해하는 국장 리동수(李东洙)와 연길시 국보대대의 허효봉(许晓峰)、소빈(肖彬) 등의 지휘하에서 파룬궁 학원에 대한 참혹하고 야만적인 박해를 시작하였다. 이 몇 년간 연길시에서 발생한 엄중한 박해사건은 거의 모두 이 몇 사람의 지휘와 책략 하에서 진행된 것이다.

2002 년 7 월 2 일, 건공파출소의 악경이 건공파출소 지도원 어명환(鱼明焕)의 지휘하에서 하루 밤새 연길시 연서가 벽돌공장 부근의 서원시장에서(현재 리화원 시장이라고 이름을 고쳤음) 숙식 영업을 하고 있는 대법제자 양종방(杨忠芳)을 산채로 때려 죽였다.

대법제자 림세웅(林世雄): 남, 46 세, 조선족, 연길국보대대에 의해 불법 체포된 후 13 년 판결을 받고 길림 감옥에서의 악열한 생활조건과 장기간의 육체에 대한 박해로 말미암아 신심에 커다란 상처를 조성하였으며 폐결핵이 발견됐을 때 그의 신체는 이미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길림 감옥 방면에서는 의연히 림세웅에 대한 박해를 멈추지 않았으며 의연히 림세웅을 석방하지 않았다. 림세웅의 병이 극격히 악화되어 생명이 위급해서야 길림감옥 방면에서는 부득이 가족의 담보하에 림세웅을 집으로 돌려 보냈다. 그러나 시간은 이미 너무 늦었다. 동시에 길림감옥과

연변지구의 자치주소재지 연길시에서 각 파출소는 연길시 공안국 전문 파룬궁을 박해하는 국장 리동수(李东洙)와 연길시 국보대대의 허효봉(许晓峰)、소빈(肖彬) 등의 지휘하에서 파룬궁 학원에 대한 참혹하고 야만적인 박해를 시작하였다. 이 몇 년간 연길시에서 발생한 엄중한 박해사건은 거의 모두 이 몇 사람의 지휘와 책략 하에서 진행된 것이다.

2002 년 7 월 2 일, 건공파출소의 악경이 건공파출소 지도원 어명환(鱼明焕)의 지휘하에서 하루 밤새 연길시 연서가 벽돌공장 부근의 서원시장에서(현재 리화원 시장이라고 이름을 고쳤음) 숙식 영업을 하고 있는 대법제자 양종방(杨忠芳)을 산채로 때려 죽였다.

대법제자 림세웅(林世雄): 남, 46 세, 조선족, 연길국보대대에 의해 불법 체포된 후 13 년 판결을 받고 길림 감옥에서의 악열한 생활조건과 장기간의 육체에 대한 박해로 말미암아 신심에 커다란 상처를 조성하였으며 폐결핵이 발견됐을 때 그의 신체는 이미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길림 감옥 방면에서는 의연히 림세웅에 대한 박해를 멈추지 않았으며 의연히 림세웅을 석방하지 않았다. 림세웅의 병이 극격히 악화되어 생명이 위급해서야 길림감옥 방면에서는 부득이 가족의 담보하에 림세웅을 집으로 돌려 보냈다. 그러나 시간은 이미 너무 늦었다. 동시에 길림감옥과

연길시 정법계통에서는 림세웅이 감옥에서의 형기가 차지 않았다는 리유로 경상적으로 림세웅을 교란하였다. 이렇게 한 나젊은 생명은 끝내 사당의 추호의 인성도 없는 박해하에서 2006 년 11 월 20 일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2006 년 6 월 8 일에 세상 뜬 연길시 대법제자 **학영강(郝迎强)** 역시 여러 차례 사당의 각公安검찰법원계통의 파룬궁 학원에 대한 잔인무도한 박해하에서 사망한 파룬궁 학원이다. (상세한 내용은 명혜망 2006 년 7 월 13 일, <학영강의 생전진술: 땅바닥과 벽의 도처에는 온통 나의 피가 튀었다>를 참고.)

2002 년 8 월 21 일, 연변대학 의학원 **박세호(朴世浩)** 교수는 랍치당한 후 백방으로 갖은 흑형의 시달림을 받고 연길시 간수소에서 박해로 사망하였다.

**지휘문(池辉文)**, 연길시 파룬궁 학원, 조선족, 연남파출소 (현 건공파출소)의 경찰과 사당이 통제한 가도위원회의 장기적인 교란과 박해하에서 2004 년 4 월 22 일 한을 품고 세상을 하직하였는데 당시 딸애 지유경은 겨우 여섯 살이었다.

연길시 대법제자 **송영화(宋永华)**는 2001 년 11 월 28 일 연길시 국보대대의 경찰에게 랍치당한 후 장기간의 흑형으로 시달림을 받다가 2003 년 10 월



연길시 정법계통에서는 림세웅이 감옥에서의 형기가 차지 않았다는 리유로 경상적으로 림세웅을 교란하였다. 이렇게 한 나젊은 생명은 끝내 사당의 추호의 인성도 없는 박해하에서 2006 년 11 월 20 일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2006 년 6 월 8 일에 세상 뜬 연길시 대법제자 **학영강(郝迎强)** 역시 여러 차례 사당의 각公安검찰법원계통의 파룬궁 학원에 대한 잔인무도한 박해하에서 사망한 파룬궁 학원이다. (상세한 내용은 명혜망 2006 년 7 월 13 일, <학영강의 생전진술: 땅바닥과 벽의 도처에는 온통 나의 피가 튀었다>를 참고.)

2002 년 8 월 21 일, 연변대학 의학원 **박세호(朴世浩)** 교수는 랍치당한 후 백방으로 갖은 흑형의 시달림을 받고 연길시 간수소에서 박해로 사망하였다.

**지휘문(池辉文)**, 연길시 파룬궁 학원, 조선족, 연남파출소 (현 건공파출소)의 경찰과 사당이 통제한 가도위원회의 장기적인 교란과 박해하에서 2004 년 4 월 22 일 한을 품고 세상을 하직하였는데 당시 딸애 지유경은 겨우 여섯 살이었다.

연길시 대법제자 **송영화(宋永华)**는 2001 년 11 월 28 일 연길시 국보대대의 경찰에게 랍치당한 후 장기간의 흑형으로 시달림을 받다가 2003 년 10 월



친척들이 장춘흑취자 로교소로 그녀를 보러 갔는데 짧디짧은 한달사이에 그녀가 이미 박해를 받아 자신의 친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녀는 의식이 모호하고 표정이 굳어 있었으며 이미 박해를 받아 실성되어 있었다.

가족에서는 이 정황을 보고 아주 분개하여 곧 로교소 4 대대의 교도원을 찾아 따졌는데 교도원은 《주아진은 올때부터 이러하였다.》고 대답하였다. 가족에서 호된 소리로 《당신들에게 잡혀오기 전까지 집에서는 아무일도 없었는데 당신들이 편편한 사람을 어떻게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던 말이요? 신체가 이 지경인데도 당신들은 받는단 말이요?》라고 묻자 4 대대 교도원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받을 때는 아무일 없었다.》

하다가 또 조금 후에는 《당지公安국에서 자극을 받은 것》이라고 앞뒤가 모순되는 말을 하였는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주아진의 가족에서는 당장에서 소장을 찾았다. 그들이 로교소 대문어구에서 보안에게 온 뜻을 이야기

친척들이 장춘흑취자 로교소로 그녀를 보러 갔는데 짧디짧은 한달사이에 그녀가 이미 박해를 받아 자신의 친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녀는 의식이 모호하고 표정이 굳어 있었으며 이미 박해를 받아 실성되어 있었다.

가족에서는 이 정황을 보고 아주 분개하여 곧 로교소 4 대대의 교도원을 찾아 따졌는데 교도원은 《주아진은 올때부터 이러하였다.》고 대답하였다. 가족에서 호된 소리로 《당신들에게 잡혀오기 전까지 집에서는 아무일도 없었는데 당신들이 편편한 사람을 어떻게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던 말이요? 신체가 이 지경인데도 당신들은 받는단 말이요?》라고 묻자 4 대대 교도원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받을 때는 아무일 없었다.》

다가 또 조금 후에는 《당지公安국에서 자극을 받은 것》이라고 앞뒤가 모순되는 말을 하였는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주아진의 가족에서는 당장에서 소장을 찾았다. 그들이 로교소 대문어구에서 보안에게 온 뜻을 이야기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다.

안도현 영경소학교 교사 장홍봉(张鸿凤)은 예전에 불법으로 유예판결을 받았었다. 얼마전 안도현 악인들이 파룬궁 전단지를 배포한다는 이유로 불법 감금시켰는데 현재 안도현 간수소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

5월 29일, 연길시의 한 구씨성(纒)을 가진 파룬궁 학원이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한 층집의 6 층에서 북산파출소 악경들에게 랍치 당하였다. 이 파룬궁학원은 60 여 세로서 모두들 그녀를 구아주머니라고 부른다.

며칠전 연변투도의 한씨성을 가진 파룬궁학원이 화룡현 공안국의 악경들에게 랍치되었다.



## 주아진(朱雅珍)이 로교소에서 박해를 받아 실성하다

안도현 이도백하 파룬궁학원 주아진은 2007 년 4 월 20 일 오후, 집에서 안도현 국보대대와 안도현 송강공안분국의 악경들에게 랍치를 당하였다. 후에 불법으로 로동교양 1 년반 판결을 받고 장춘 흑취자로교소 4 대대로 끌려갔다. 그런데 짧디짧은 한달 사이에 주아진은 이미 박해로 정신이상에 걸렸다.

5 월 23 일 오후, 주아진의 남편, 아들 그리고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다.

안도현 영경소학교 교사 장홍봉(张鸿凤)은 예전에 불법으로 유예판결을 받았었다. 얼마전 안도현 악인들이 파룬궁 전단지를 배포한다는 이유로 불법 감금시켰는데 현재 안도현 간수소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

5월 29일, 연길시의 한 구씨성(纒)을 가진 파룬궁 학원이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한 층집의 6 층에서 북산파출소 악경들에게 랍치 당하였다. 이 파룬궁학원은 60 여 세로서 모두들 그녀를 구아주머니라고 부른다.

며칠전 연변투도의 한씨성을 가진 파룬궁학원이 화룡현 공안국의 악경들에게 랍치되었다.



## 주아진(朱雅珍)이 로교소에서 박해를 받아 실성하다

안도현 이도백하 파룬궁학원 주아진은 2007 년 4 월 20 일 오후, 집에서 안도현 국보대대와 안도현 송강공안분국의 악경들에게 랍치를 당하였다. 후에 불법으로 로동교양 1 년반 판결을 받고 장춘 흑취자로교소 4 대대로 끌려갔다. 그런데 짧디짧은 한달 사이에 주아진은 이미 박해로 정신이상에 걸렸다.

5 월 23 일 오후, 주아진의 남편, 아들 그리고

28 일 화룡시간수소에서 박해로 사망하였다.

2003 년 3 월분, 연길시 공안국에서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데 참여한 국장 리동수의 음모적인 책략하에서 조양파출소 소장 류신문(刘新文)이 담당 민경을 거느리고 연길시 파룬궁 학원들에 대해 대규모적인 랍치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40 여명의 파룬궁 학원을 체포하였고 대부분이 여 파룬궁 학원이었다. 그들은 가장 비열한 수단으로 파룬궁 학원들에게 가장 파렴치하고 야만적인 박해를 감행하였는데 많은 녀 파룬궁 학원들은 경찰에 의해 두 팔을 뒤로 묶이운채 허공에 10 여시간씩 매달려 있었으며, 비닐봉지를 뒤집어 씌우고, 달아 매고(두 손은 모두 수갑을 채우고 두 다리 혹은 한 다리에 족쇄를 채우고 반공중에 달아매는데 온 몸의 중량을 모두 두 손으로 지탱해야 한다), 호랑이 의자에 앉히고, 잠을 재우지 않고, 각종 남에게 알릴 수 없는 수단으로 파룬궁 학원들을 괴롭히고 릉육하였다.

또한 경찰들은 구류, 로교, 판결로 파룬궁학원의 가족을 위협하고 기편함으로써 파룬궁학원들의 가족에게서 강제로 돈과 재물을 갈취하고 사기쳐냈다.

사악한 당은 조양파출소에서 파룬궁학원을 박해하는데 공로가 있다고 그중 파룬궁 학원을 박해하는데 가장 힘을 낸 몇몇 공간들을 연길시 공안국, 안전국 등 사당기관단위로로 승급시켰다. 조양파출소의 소장

28 일 화룡시간수소에서 박해로 사망하였다.

2003 년 3 월분, 연길시 공안국에서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데 참여한 국장 리동수의 음모적인 책략하에서 조양파출소 소장 류신문(刘新文)이 담당 민경을 거느리고 연길시 파룬궁 학원들에 대해 대규모적인 랍치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40 여명의 파룬궁 학원을 체포하였고 대부분이 여 파룬궁 학원이었다. 그들은 가장 비열한 수단으로 파룬궁 학원들에게 가장 파렴치하고 야만적인 박해를 감행하였는데 많은 녀 파룬궁 학원들은 경찰에 의해 두 팔을 뒤로 묶이운채 허공에 10 여시간씩 매달려 있었으며, 비닐봉지를 뒤집어 씌우고, 달아 매고(두 손은 모두 수갑을 채우고 두 다리 혹은 한 다리에 족쇄를 채우고 반공중에 달아매는데 온 몸의 중량을 모두 두 손으로 지탱해야 한다), 호랑이 의자에 앉히고, 잠을 재우지 않고, 각종 남에게 알릴 수 없는 수단으로 파룬궁 학원들을 괴롭히고 릉육하였다.

또한 경찰들은 구류, 로교, 판결로 파룬궁학원의 가족을 위협하고 기편함으로써 파룬궁학원들의 가족에게서 강제로 돈과 재물을 갈취하고 사기쳐냈다.

사악한 당은 조양파출소에서 파룬궁학원을 박해하는데 공로가 있다고 그중 파룬궁 학원을 박해하는데 가장 힘을 낸 몇몇 공간들을 연길시 공안국, 안전국 등 사당기관단위로로 승급시켰다. 조양파출소의 소장

류신문(刘新文) 역시 이 기간에 한 민경으로부터 소장으로 승급되었던 것이다.

이 8년간의 참혹한 박해중에서 연길시 북산 파출소, 공원파출소, 건공파출소, 하남파출소, 흥파출소, 의란파출소 등 부문은 사악한 당의 주먹이 되어 무고하고 선량한 파룬궁 학원들을 극력 박해하였다. 이 몇 년동안 그 중 많은 사람들은 진상을 알고 나서 더 이상 사당의 주먹질을 하지 않았으나 또 일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눈앞의 리익을 위하여 고집스럽게도 사당의 순장품이 되려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권고하는바 사악한 중공의 진실한 면모를 똑똑히 보아내고 사당의 일체 조직에서 빨리 탈출하여 자신에게 미래를 남겨놓기를 바란다.

## 어머니는 박해를 받고 딸아이는 실성하다

【명혜망】길림성 연길시 파룬궁학원 **김명화**는 요즘 딸애에게 맞아서 이빨 한대가 부러지고 얼굴도 맞아서 퍼렇게 멍들었으며 목은 딸애에게 굶히어 피자국이 력력하다. 집안의 문들은 대부분 딸애가 마사 놓아 사용할 수가 없으며 방안은 더욱 아수라장이다. 도대체 무슨 원인이 이 열 몇 살에 나는 여자아이더러 이렇게 험한 일을 저지르도록 하였는가? 이 배후에는 어떤 가슴 쓰린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가?

12

류신문(刘新文) 역시 이 기간에 한 민경으로부터 소장으로 승급되었던 것이다.

이 8년간의 참혹한 박해중에서 연길시 북산 파출소, 공원파출소, 건공파출소, 하남파출소, 흥파출소, 의란파출소 등 부문은 사악한 당의 주먹이 되어 무고하고 선량한 파룬궁 학원들을 극력 박해하였다. 이 몇 년동안 그 중 많은 사람들은 진상을 알고 나서 더 이상 사당의 주먹질을 하지 않았으나 또 일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눈앞의 리익을 위하여 고집스럽게도 사당의 순장품이 되려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권고하는바 사악한 중공의 진실한 면모를 똑똑히 보아내고 사당의 일체 조직에서 빨리 탈출하여 자신에게 미래를 남겨놓기를 바란다.

## 어머니는 박해를 받고 딸아이는 실성하다

【명혜망】길림성 연길시 파룬궁학원 **김명화**는 요즘 딸애에게 맞아서 이빨 한대가 부러지고 얼굴도 맞아서 퍼렇게 멍들었으며 목은 딸애에게 굶히어 피자국이 력력하다. 집안의 문들은 대부분 딸애가 마사 놓아 사용할 수가 없으며 방안은 더욱 아수라장이다. 도대체 무슨 원인이 이 열 몇 살에 나는 여자아이더러 이렇게 험한 일을 저지르도록 하였는가? 이 배후에는 어떤 가슴 쓰린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가?

12

구태로교소에서 1 년간의 로동교양을 받았다. 돌아온후 줄곧 연길에서 일하였다. 집에는 년로하신 어머니와 3 년전에 반신불수로 된 녀동생이 있으며 고정된 수입이 없다. 어머니는 남에게 샅일을 해주는 것으로 생활을 유지한다. 본래 생활이 곤란한데 이번에는 더욱 설상가상이다.

## 연변지구에서 근간에 또 여러명의 파룬궁 학원들이 랍치당하였다

연변파룬궁학원 류희매(刘喜梅), 왕청현 사람으로 연길시에서 근무하고 있다. 5 월 12 일 오후 3 시, 연길시에서 진상을 이야기하다 사악한 악경에게 연길시 북산파출소로 랍치되었는데 현재 연길시 간수소에 감금되어 있다.

2006 년 5 월 23 일, 안도현 량강진(两江镇)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교사 왕채하(王彩霞)가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한다는 의심을 받고 돈화시 악경들에게 랍치당하여 돈화로 끌려가 박해를 받고 있다. (동시에 왕채하의 돈화에 있는 기타 친구들도 랍치되었는데 상세한 인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음)

5 월 28 일 오후 10 시 좌우, 룡정시 대법제자 김봉천(金峰天)이 연길에서 룡정시 공안국 네명의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대법서적과 컴퓨터를 빼앗겼다. 김봉천은 집을 떠나 떠돌아 다니며 연길에서 물을

25

구태로교소에서 1 년간의 로동교양을 받았다. 돌아온후 줄곧 연길에서 일하였다. 집에는 년로하신 어머니와 3 년전에 반신불수로 된 녀동생이 있으며 고정된 수입이 없다. 어머니는 남에게 샅일을 해주는 것으로 생활을 유지한다. 본래 생활이 곤란한데 이번에는 더욱 설상가상이다.

## 연변지구에서 근간에 또 여러명의 파룬궁 학원들이 랍치당하였다

연변파룬궁학원 류희매(刘喜梅), 왕청현 사람으로 연길시에서 근무하고 있다. 5 월 12 일 오후 3 시, 연길시에서 진상을 이야기하다 사악한 악경에게 연길시 북산파출소로 랍치되었는데 현재 연길시 간수소에 감금되어 있다.

2006 년 5 월 23 일, 안도현 량강진(两江镇)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교사 왕채하(王彩霞)가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한다는 의심을 받고 돈화시 악경들에게 랍치당하여 돈화로 끌려가 박해를 받고 있다. (동시에 왕채하의 돈화에 있는 기타 친구들도 랍치되었는데 상세한 인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음)

5 월 28 일 오후 10 시 좌우, 룡정시 대법제자 김봉천(金峰天)이 연길에서 룡정시 공안국 네명의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대법서적과 컴퓨터를 빼앗겼다. 김봉천은 집을 떠나 떠돌아 다니며 연길에서 물을

25



보응이 눈앞에 닥쳐올 것이다 !

## 왕청현 대법제자 곡흥무(曲兴武)가 불법로동교양 판결을 받다

5 월 21 일 좌우, 왕청현 대법제자 곡흥무가 랍치당하였는데 악경이 그의 집에서 대법자료를 발견하고 랍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악경 광청우(管清 友)는 《너희들은 인터넷에 폭로하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는 더욱 힘을 내어 너희들을 붙잡는다.》라며 떠들어댔다.

곡흥무는 이미 불법으로 로동교양판결을 받고 장춘으로 보내졌다.

## 룡정시 대법제자 석청송(石青松)이 랍치당하다

5 월 12 일 오후 3 시 좌우 길림성룡정시 조양천진 팔도촌 대법제자 석청송이 룡정시 공안국과 조양천파출소의 10 여명의 경찰들에게 체포되었다. 현재 이미 악당에 의해 1 년 반의 로동교양 판결을 받았는데 구태 로교소로 보내여 더욱 심한 박해를 감행하려 하고 있다.

대법제자 석청송, 남, 32 세 길림성 룡정시 조양천진 팔도촌사람, 1996 년부터 대법을 수련하기 시작하였으며 2002 년 악당에 의해 불법적으로

보응이 눈앞에 닥쳐올 것이다 !

## 왕청현 대법제자 곡흥무(曲兴武)가 불법로동교양 판결을 받다

5 월 21 일 좌우, 왕청현 대법제자 곡흥무가 랍치당하였는데 악경이 그의 집에서 대법자료를 발견하고 랍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악경 광청우(管清 友)는 《너희들은 인터넷에 폭로하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는 더욱 힘을 내어 너희들을 붙잡는다.》라며 떠들어댔다.

곡흥무는 이미 불법으로 로동교양판결을 받고 장춘으로 보내졌다.

## 룡정시 대법제자 석청송(石青松)이 랍치당하다

5 월 12 일 오후 3 시 좌우 길림성룡정시 조양천진 팔도촌 대법제자 석청송이 룡정시 공안국과 조양천파출소의 10 여명의 경찰들에게 체포되었다. 현재 이미 악당에 의해 1 년 반의 로동교양 판결을 받았는데 구태 로교소로 보내여 더욱 심한 박해를 감행하려 하고 있다.

대법제자 석청송, 남, 32 세 길림성 룡정시 조양천진 팔도촌사람, 1996 년부터 대법을 수련하기 시작하였으며 2002 년 악당에 의해 불법적으로

김명화는 일찍 과부가 되어 어린 딸애와 서로 의지하며 어려운 나날을 보내었다. 생활의 간난신고로 하여 그녀의 몸에는 여러가지 질병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때 행운스럽게도 파룬따파를 만나게 되었다. 수련을 통하여 각종 질병들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어둡던 심정도 한번에 밝아졌으며 그로부터 그녀는 쾌활한 사람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좋은 광경은 오래가지 않아 99 년 7 월 20 일, 강씨 정치유망집단은 소인의 질투심으로 다른 사람의 권고도 듣지 않고 8 년에 달하는 피비린진압, 박해를 시작하였다. 김명화는 이 몇 년간의 박해 속에서 수 차례 비인간적인 혹형으로 박해를 당하였다.

그날, 김명화가 아침에 문을 나설 때, 날은 아직 밝지 않았고 딸애는 아직 자고 있었다. 그녀는 별수 없이 문을 잠그고 나섰다. 김명화는 아침시장에서 랍치되어 국보대대로 끌려갔는데 갑자기 딸애가 아직 아침도 먹지 못하고 학교에 가야하며 문은 잠겨놓고 온 것이 생각났다. 하여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딸애에게 문을 열어주고 학교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악인들은 이런 최저한도의 요구마저도 들어주지 않았으며 두 달 후 로동교양

김명화는 일찍 과부가 되어 어린 딸애와 서로 의지하며 어려운 나날을 보내었다. 생활의 간난신고로 하여 그녀의 몸에는 여러가지 질병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때 행운스럽게도 파룬따파를 만나게 되었다. 수련을 통하여 각종 질병들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어둡던 심정도 한번에 밝아졌으며 그로부터 그녀는 쾌활한 사람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좋은 광경은 오래가지 않아 99 년 7 월 20 일, 강씨 정치유망집단은 소인의 질투심으로 다른 사람의 권고도 듣지 않고 8 년에 달하는 피비린진압, 박해를 시작하였다. 김명화는 이 몇 년간의 박해 속에서 수 차례 비인간적인 혹형으로 박해를 당하였다.

그날, 김명화가 아침에 문을 나설 때, 날은 아직 밝지 않았고 딸애는 아직 자고 있었다. 그녀는 별수 없이 문을 잠그고 나섰다. 김명화는 아침시장에서 랍치되어 국보대대로 끌려갔는데 갑자기 딸애가 아직 아침도 먹지 못하고 학교에 가야하며 문은 잠겨놓고 온 것이 생각났다. 하여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딸애에게 문을 열어주고 학교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악인들은 이런 최저한도의 요구마저도 들어주지 않았으며 두 달 후 로동교양

1년 판결을 내리고 장춘 로교소로 보내었다.

떠나기 전까지도 김명화는 딸애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이나 양지를 가진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보라, 어머니로 된 마음에 피눈물이 흐르지 않겠는가. 바로 그날부터, 어려서 아버지를 잃은 어린 설매는 웬일인지 아침저녁으로 동반하던 어머니를 볼 수 없게 되었다. 그 해 그녀는 11살이었다. 이처럼 어린 생명이 홀로 빈방을 지켜야 했으며 생활상에서 의지할 곳이라곤 아무데도 없었다.

이때 연길시 불법인원들은 전문 수많은 순라경찰과 가도책임자들을 안배하여 김명화의 집부근에 숨어 살피면서 어린 설매를 도와주는 파룬궁 학원들을 붙잡으려고 망상하였다. 11살에 난 설매는 갑자기 어머니 사랑을 잃고 가정의 따듯함을 잃었으며 홀로 방에 앉아 어두운 밤을 바라볼 때면 썰렁한 방안이 갈수록 더욱 두려워지곤 하였다. 그 나날에 의지하지 할 곳 없는 설매는 좁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목이 메도록 어머니를 부르며 흘린 눈물은 얼마인지 모른다. 작은 기적에도 놀라서 반죽음이 되곤 했으며 매 하나의 길고 어두운 밤마다 고독과 공포, 기아가 설매를 동반하고 괴롭힐 뿐이었다.

2000년 말, 김명화가 집으로 풀려 나왔을 때,



1년 판결을 내리고 장춘 로교소로 보내었다.

떠나기 전까지도 김명화는 딸애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이나 양지를 가진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보라, 어머니로 된 마음에 피눈물이 흐르지 않겠는가. 바로 그날부터, 어려서 아버지를 잃은 어린 설매는 웬일인지 아침저녁으로 동반하던 어머니를 볼 수 없게 되었다. 그 해 그녀는 11살이었다. 이처럼 어린 생명이 홀로 빈방을 지켜야 했으며 생활상에서 의지할 곳이라곤 아무데도 없었다.

이때 연길시 불법인원들은 전문 수많은 순라경찰과 가도책임자들을 안배하여 김명화의 집부근에 숨어 살피면서 어린 설매를 도와주는 파룬궁 학원들을 붙잡으려고 망상하였다. 11살에 난 설매는 갑자기 어머니 사랑을 잃고 가정의 따듯함을 잃었으며 홀로 방에 앉아 어두운 밤을 바라볼 때면 썰렁한 방안이 갈수록 더욱 두려워지곤 하였다. 그 나날에 의지하지 할 곳 없는 설매는 좁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목이 메도록 어머니를 부르며 흘린 눈물은 얼마인지 모른다. 작은 기적에도 놀라서 반죽음이 되곤 했으며 매 하나의 길고 어두운 밤마다 고독과 공포, 기아가 설매를 동반하고 괴롭힐 뿐이었다.

2000년 말, 김명화가 집으로 풀려 나왔을 때,



할머니는 아들을 요구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집에는 또 병환에 계시는 할아버지도 보살핌이 필요하여 별수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전에 리문지는 불법으로 로동교양 판결을 받고 장춘감옥으로 보내졌는데 신체가 합격되지 않아 원 지역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후 신체상황이 좋아지자 또다시 장춘으로 보냈다.

현재 할머니는 사람만 만나면 가정의 비참한 처지를 이야기 한다: 아들은 랍치당하여 박해를 당하고 손주는 부양할 사람이 없으며 집에 늙은이는 중병에 걸리고 자신도 온몸에 병 투성이인데 약경들은 사람을 기어이 놔주지 않고 로동교양을 보냈다. 듣는 사람들은 모두 이 한 가족의 비참한 처지에 대하여 불평을 토하였으며 눈물을 흘렸다.

여기에서 리문지에 대한 박해에 참여한 왕청현 동광진 파출소, 왕청현 국보대대등의 약경들에게 경고하는바 공산악당의 정권은 지금 곧 산산이 무너져 가고 있다. 2천여만 탈당물결은 공산악당의 해체는 이미 결정된 국면임을 표명하였다. 미혹에 빠져 악당의 뒤를 바싹 따라 죄를 짓지 말라, 양지를 팔아서 짧은 리익을 바꿔오면 나중에 당신들을 기다리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감당하는 것이다. 하루빨리 악행을 멈추라! 당신들의 범죄행위는 모두 기록되어 있다. 만일 기어코 회개하지 않는다면

할머니는 아들을 요구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집에는 또 병환에 계시는 할아버지도 보살핌이 필요하여 별수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전에 리문지는 불법으로 로동교양 판결을 받고 장춘감옥으로 보내졌는데 신체가 합격되지 않아 원 지역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후 신체상황이 좋아지자 또다시 장춘으로 보냈다.

현재 할머니는 사람만 만나면 가정의 비참한 처지를 이야기 한다: 아들은 랍치당하여 박해를 당하고 손주는 부양할 사람이 없으며 집에 늙은이는 중병에 걸리고 자신도 온몸에 병 투성이인데 약경들은 사람을 기어이 놔주지 않고 로동교양을 보냈다. 듣는 사람들은 모두 이 한 가족의 비참한 처지에 대하여 불평을 토하였으며 눈물을 흘렸다.

여기에서 리문지에 대한 박해에 참여한 왕청현 동광진 파출소, 왕청현 국보대대등의 약경들에게 경고하는바 공산악당의 정권은 지금 곧 산산이 무너져 가고 있다. 2천여만 탈당물결은 공산악당의 해체는 이미 결정된 국면임을 표명하였다. 미혹에 빠져 악당의 뒤를 바싹 따라 죄를 짓지 말라, 양지를 팔아서 짧은 리익을 바꿔오면 나중에 당신들을 기다리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감당하는 것이다. 하루빨리 악행을 멈추라! 당신들의 범죄행위는 모두 기록되어 있다. 만일 기어코 회개하지 않는다면



걸음마저 휘청거렸으며 얼굴은 누른 빛을 띄고 말할  
기운마저 없어 보였다. 로인과 손자는 사람이  
시달림을 받아 이 지경이 된 것을 보고 고통스런  
심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실성 통곡하였다.

악경 관청우는 왕청현 국보대대 대대장으로  
임명된 이래 줄곧 강씨 유망집단을 따라 대법을  
박해하고 대법제자들을 박해하는 나쁜짓을 적지 않게  
하였다. 왕청현의 거의 모든 대법제자들이 랍치당하고  
집을 수색당하고 불법 로동교양당하고 협잡당하는 등  
그 박해는 모두 그자가 직접 참여하였거나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지만 표면상으로는 도리어 아주 선한  
것처럼 꾸민다. 이번에 리문지가 단식으로 항의하자  
그는 오히려 《왕청에서는 이렇게 해도 쓸모없다,  
죽어도 나와는 상관없다.》고 하였다. 한 사람이  
그에게 《그 사람은 집에서 아이에게 련공을 가르쳐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일년 반의  
로동교양을 시키려고 하는가?》 라고 질문하자  
관청우는 《이것은 국가에서 제정한 것이다. 파룬궁을  
련마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여 내가 누구를  
불잡고 싶으면 누구를 불잡아 올 방법이 있다.》  
라고 하였다. 관청우는 또한 더욱 사악하게 말하기를  
당시 리문지와 한 울안에 살고 있는 70 여세에 나는  
할머니도 붙들려다가 15 일간 구류 시킬 생각이었다고  
하였다. 참으로 사악하기로 짝이 없는 자이다.

걸음마저 휘청거렸으며 얼굴은 누른 빛을 띄고 말할  
기운마저 없어 보였다. 로인과 손자는 사람이  
시달림을 받아 이 지경이 된 것을 보고 고통스런  
심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실성 통곡하였다.

악경 관청우는 왕청현 국보대대 대대장으로  
임명된 이래 줄곧 강씨 유망집단을 따라 대법을  
박해하고 대법제자들을 박해하는 나쁜짓을 적지 않게  
하였다. 왕청현의 거의 모든 대법제자들이 랍치당하고  
집을 수색당하고 불법 로동교양당하고 협잡당하는 등  
그 박해는 모두 그자가 직접 참여하였거나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지만 표면상으로는 도리어 아주 선한  
것처럼 꾸민다. 이번에 리문지가 단식으로 항의하자  
그는 오히려 《왕청에서는 이렇게 해도 쓸모없다,  
죽어도 나와는 상관없다.》고 하였다. 한 사람이  
그에게 《그 사람은 집에서 아이에게 련공을 가르쳐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일년 반의  
로동교양을 시키려고 하는가?》 라고 질문하자  
관청우는 《이것은 국가에서 제정한 것이다. 파룬궁을  
련마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여 내가 누구를  
불잡고 싶으면 누구를 불잡아 올 방법이 있다.》  
라고 하였다. 관청우는 또한 더욱 사악하게 말하기를  
당시 리문지와 한 울안에 살고 있는 70 여세에 나는  
할머니도 붙들려다가 15 일간 구류 시킬 생각이었다고  
하였다. 참으로 사악하기로 짝이 없는 자이다.

그녀는 예전의 그 영리하던 딸아이가 끊임없이 웃어  
대며 행위가 의상한 아이로 변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딸애를 데리고 뇌과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한 11 살에 난 녀자아이는 영원히 그녀가  
가져야 할 일체를 잃어버렸으며 영원히 학교, 선생,  
동학들을 떠났다.

이렇게 사람의 가슴을 쓰리게 하는 사연도 그런  
불법관원들의 추호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다.  
김명화가 로교소에서 풀려  
나온 후에도 불법관원들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는데  
2, 3일에 한번씩 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수색  
하였다. 경찰이 매 한번  
왔다 갈 때마다 설매의 병세는 한번씩 과중해지곤  
하였다. 별수없이 김명화는 부단이 집을 옮기고  
세방살이를 하곤 하였으나 그 어디로 가던지 경찰의  
교란은 피할 길이 없었다.

2003 년 3 월초, 네 명의 하남파출소 경찰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김명화의 집에 들어 닥쳐 비법적으로  
집을 수색하고 파룬궁 서적을 들춰내고 당장에서  
김명화를 랍치하였다. 보기만 해도 몸서리치는 박해가  
바로 어린 설매의 눈앞에서 벌어졌던 것이다. 강대한

그녀는 예전의 그 영리하던 딸아이가 끊임없이 웃어  
대며 행위가 의상한 아이로 변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딸애를 데리고 뇌과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한 11 살에 난 녀자아이는 영원히 그녀가  
가져야 할 일체를 잃어버렸으며 영원히 학교, 선생,  
동학들을 떠났다.

이렇게 사람의 가슴을 쓰리게 하는 사연도 그런  
불법관원들의 추호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다.  
김명화가 로교소에서 풀려  
나온 후에도 불법관원들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는데  
2, 3일에 한번씩 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수색  
하였다. 경찰이 매 한번  
왔다 갈 때마다 설매의 병세는 한번씩 과중해지곤  
하였다. 별수없이 김명화는 부단이 집을 옮기고  
세방살이를 하곤 하였으나 그 어디로 가던지 경찰의  
교란은 피할 길이 없었다.

2003 년 3 월초, 네 명의 하남파출소 경찰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김명화의 집에 들어 닥쳐 비법적으로  
집을 수색하고 파룬궁 서적을 들춰내고 당장에서  
김명화를 랍치하였다. 보기만 해도 몸서리치는 박해가  
바로 어린 설매의 눈앞에서 벌어졌던 것이다. 강대한



자극으로 인해 원래 정신이 이상하던 아이는 더는 감당할 수가 없어 두 눈을 편히 뜨고 어머니가 나쁜 놈들에게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낸 소리는 울음소리가 아니라 미친듯한 웃음소리였다. 아이가 미쳤던 것이다.

그러나 사당의 불법인원들은 어린 설매가 정신이 이미 완전히 붕괴되고 생활상에서 자립할 수 없는 정황하에서도 추호의 인성도 없이 김명화를 랍치하여 불법적으로 로동교양 2 년 판결을 내리고 흑취자 로교소(黑嘴子)로 보내었다.

아이의 어머니가 잡혀간 후,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가도판사처에서는 가련한 여자아이를 정신병원에 보냈는데 당시 그들의 말로는 면비로 입원, 치료 한다는 것이었다.

김명화는 흑취자 로교소에서 신앙을 견지하고 《전화》를 거절함으로 하여 불법인원들에게서 참혹한 혹형으로 박해를 받았다.

2005년 3월, 김명화가 집으로 돌아온 후, 병원에 아이를 보러 가서야 근본 면비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악인들은 김명화의 월급을 몽땅 가로챘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는 아직 병원에 빛진 설매의 의료비가 2 만여 원이 되므로 먼저 빛진 돈을 갚아야만이 입원수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로교소에서 장기적인 박해를 받고 풀려 나온 김명화는

자극으로 인해 원래 정신이 이상하던 아이는 더는 감당할 수가 없어 두 눈을 편히 뜨고 어머니가 나쁜 놈들에게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낸 소리는 울음소리가 아니라 미친듯한 웃음소리였다. 아이가 미쳤던 것이다.

그러나 사당의 불법인원들은 어린 설매가 정신이 이미 완전히 붕괴되고 생활상에서 자립할 수 없는 정황하에서도 추호의 인성도 없이 김명화를 랍치하여 불법적으로 로동교양 2 년 판결을 내리고 흑취자 로교소(黑嘴子)로 보내었다.

아이의 어머니가 잡혀간 후,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가도판사처에서는 가련한 여자아이를 정신병원에 보냈는데 당시 그들의 말로는 면비로 입원, 치료 한다는 것이었다.

김명화는 흑취자 로교소에서 신앙을 견지하고 《전화》를 거절함으로 하여 불법인원들에게서 참혹한 혹형으로 박해를 받았다.

2005년 3월, 김명화가 집으로 돌아온 후, 병원에 아이를 보러 가서야 근본 면비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악인들은 김명화의 월급을 몽땅 가로챘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는 아직 병원에 빛진 설매의 의료비가 2 만여 원이 되므로 먼저 빛진 돈을 갚아야만이 입원수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로교소에서 장기적인 박해를 받고 풀려 나온 김명화는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날은 바람이 특별히 세졌는데 로인은 큰 길옆에서 한 시간 남짓이 기다리다가 문을 두드리며 손자의 이름을 불렀다. 이때 안에서 한 악경이 걸어 나왔는데 태도와 어투가 아주 거만하고 악렬하였다. 로인이 아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자 악경은 로인과 다투기 시작하였는데 로인이 분개하여 심장이 후둑후둑 뿔 지경이었다. 나중에 로인은 별수없이 큰 바람을 무릅쓰고 휘청거리면서 돌아갔다.

5월 8일 오후, 동광진 파출소 소장 배영남(裴永男)은 리문지 어머니의 앞에서 왕청현公安국에 전화를 걸어 로인이 아들을 만나려한다는 의사를 말하였다. 결과는 전화 반대편(관청우(管清友))에서 안된다고 하였다. 로인은 별수없이 손자를 거느리고 직접 왕청현 국보대대 대대장 관청우(管清友)를 찾아 아들을 만나보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이번에는 관청우는 아주 통쾌하게 동의하였다. 관청우는 리문지의 어머니를 속여 말하기를 만일 리문지가 수련을 포기한다면 당장에서 나갈수 있다는 것이었다.

오후에 리문지의 어머니는 착한 사람의 부축하에 왕청현 국보대대에 도착하였다. 국보대대장 관청우는 차를 몰고 세사람을 싣고 종안향 왕청현 간수로 갔다. 리문지는 단식으로 박해에 항의함으로 하여 원래 160 여근이 되던 체중이 지금은 여워서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날은 바람이 특별히 세졌는데 로인은 큰 길옆에서 한 시간 남짓이 기다리다가 문을 두드리며 손자의 이름을 불렀다. 이때 안에서 한 악경이 걸어 나왔는데 태도와 어투가 아주 거만하고 악렬하였다. 로인이 아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자 악경은 로인과 다투기 시작하였는데 로인이 분개하여 심장이 후둑후둑 뿔 지경이었다. 나중에 로인은 별수없이 큰 바람을 무릅쓰고 휘청거리면서 돌아갔다.

5월 8일 오후, 동광진 파출소 소장 배영남(裴永男)은 리문지 어머니의 앞에서 왕청현公安국에 전화를 걸어 로인이 아들을 만나려한다는 의사를 말하였다. 결과는 전화 반대편(관청우(管清友))에서 안된다고 하였다. 로인은 별수없이 손자를 거느리고 직접 왕청현 국보대대 대대장 관청우(管清友)를 찾아 아들을 만나보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이번에는 관청우는 아주 통쾌하게 동의하였다. 관청우는 리문지의 어머니를 속여 말하기를 만일 리문지가 수련을 포기한다면 당장에서 나갈수 있다는 것이었다.

오후에 리문지의 어머니는 착한 사람의 부축하에 왕청현 국보대대에 도착하였다. 국보대대장 관청우는 차를 몰고 세사람을 싣고 종안향 왕청현 간수로 갔다. 리문지는 단식으로 박해에 항의함으로 하여 원래 160 여근이 되던 체중이 지금은 여워서

공술과 증거도 없는 정황하에서 파룬궁 자료를 들춰내고 리문지가 아들을 인도하여 파룬궁을 련마 하였다라는 이유로 리문지에게 불법으로 로동교양 일년 반의 판결을 내렸다.

리문지는 지금 불법으로 장춘 로교소에 갇혀 있으며 열살난 그의 아들 리소진은 의지할곳을 잃었다. 리문지의 근 80 고령에 이른 늙은 부친은 아들이 무고하게 붙잡히고 겨우 열살에 난 손자가 의지할 곳이 없게 되자 압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 갑자기 병(혈뇨)이 중해져 병원에 입원하였다.

동광진 파출소 경찰들은 4 월 23 일 리문지의 아들을 고령의 허약한 리문지의 부모님과 아이의 어머니께 밀어 말기려고 하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또 양로원에 보내겠다고 떠들어 댔지만 달성하지 못하여 그들은 아이를 파출소에다 두고 있는데 비록 아이는 날마다 학교로 가지만 아버지가 불법 감금되어 있는데 공부가 잘 될 수 있겠는가? 이번에 할머니는 아이의 필통에 연필마저 없는 것을 보게 되었다.

5 월 6 일, 리문지의 고령의 어머니는 왕청으로 와서 아들을 놓아줄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로인이 왕청현 동광진 파출소로 찾아오니 파출소에서는 오늘은 5.1 휴일기간이므로 접견할수 없다고 하였다. 이튿날 로인이 또 홀몸으로 동광파출소로 찾아가니 파출소 대문은 잠겨져 있었다. 로인이 문을 두드려도

공술과 증거도 없는 정황하에서 파룬궁 자료를 들춰내고 리문지가 아들을 인도하여 파룬궁을 련마 하였다라는 이유로 리문지에게 불법으로 로동교양 일년 반의 판결을 내렸다.

리문지는 지금 불법으로 장춘 로교소에 갇혀 있으며 열살난 그의 아들 리소진은 의지할곳을 잃었다. 리문지의 근 80 고령에 이른 늙은 부친은 아들이 무고하게 붙잡히고 겨우 열살에 난 손자가 의지할 곳이 없게 되자 압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 갑자기 병(혈뇨)이 중해져 병원에 입원하였다.

동광진 파출소 경찰들은 4 월 23 일 리문지의 아들을 고령의 허약한 리문지의 부모님과 아이의 어머니께 밀어 말기려고 하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또 양로원에 보내겠다고 떠들어 댔지만 달성하지 못하여 그들은 아이를 파출소에다 두고 있는데 비록 아이는 날마다 학교로 가지만 아버지가 불법 감금되어 있는데 공부가 잘 될 수 있겠는가? 이번에 할머니는 아이의 필통에 연필마저 없는 것을 보게 되었다.

5 월 6 일, 리문지의 고령의 어머니는 왕청으로 와서 아들을 놓아줄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로인이 왕청현 동광진 파출소로 찾아오니 파출소에서는 오늘은 5.1 휴일기간이므로 접견할수 없다고 하였다. 이튿날 로인이 또 홀몸으로 동광파출소로 찾아가니 파출소 대문은 잠겨져 있었다. 로인이 문을 두드려도

지금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무슨 능력으로 병원의 빚을 갚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어 김명화는 딸애를 집으로 데려와 스스로 보살필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딸애의 병세는 하찮은 의료수단 효과를 보지 못하여 부단이 과중해졌다. 끝내 금년 3 월 16 일, 딸애의 병이 과중해져 부득불 또 병원으로 들어갔다. 김명화는 민정부문에서 매 한 명의 정신병환자에게 매년마다 두 달 반의 면비치료를 해주는 정책이 있다는 말을 듣고 수속을 밟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환자가 이미 2 만 3 천 원의 의료비를 갚지 못하였다는 리유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김명화가 어떻게 해석하던 병원에서는 받기를 거절하였다. 별수 없이 김명화는 딸애의 출원수속을 밟았는데 병원에서는 보증금 700 원마저 억류해 버렸다.

집으로 돌아온 후 설매의 병세는 더욱 엄중해졌는데 어머니의 빈약한 월급으로는 모녀간의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워 날마다 친척친구들을 청하여 딸애를 보살피주도록 함으로써 친정과 선심으로 애를 감화시키려고 하였다.

이렇게 설매가 하루하루 호전되고 있을 때 어느 하루 갑자기 한 경찰이 찾아와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김명화는 설매가 경찰을 보면 병이 도질 것 같아 문을 인차 열지 않았다. 딸애는 경찰이 또 어머니를 잡아갈

지금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무슨 능력으로 병원의 빚을 갚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어 김명화는 딸애를 집으로 데려와 스스로 보살필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딸애의 병세는 하찮은 의료수단 효과를 보지 못하여 부단이 과중해졌다. 끝내 금년 3 월 16 일, 딸애의 병이 과중해져 부득불 또 병원으로 들어갔다. 김명화는 민정부문에서 매 한 명의 정신병환자에게 매년마다 두 달 반의 면비치료를 해주는 정책이 있다는 말을 듣고 수속을 밟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환자가 이미 2 만 3 천 원의 의료비를 갚지 못하였다는 리유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김명화가 어떻게 해석하던 병원에서는 받기를 거절하였다. 별수 없이 김명화는 딸애의 출원수속을 밟았는데 병원에서는 보증금 700 원마저 억류해 버렸다.

집으로 돌아온 후 설매의 병세는 더욱 엄중해졌는데 어머니의 빈약한 월급으로는 모녀간의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워 날마다 친척친구들을 청하여 딸애를 보살피주도록 함으로써 친정과 선심으로 애를 감화시키려고 하였다.

이렇게 설매가 하루하루 호전되고 있을 때 어느 하루 갑자기 한 경찰이 찾아와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김명화는 설매가 경찰을 보면 병이 도질 것 같아 문을 인차 열지 않았다. 딸애는 경찰이 또 어머니를 잡아갈



가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줄곧 가지 않고 죽어 라고 문을 두드렸다. 김명화는 별수 없어 경찰에게 《들어올 수는 있는데 나의 딸애가 당신을 보게 하지는 말아요, 애를 놀래 서는 안돼요.》 라고 하였다. 김명화를 도와 아이를 돌보던 친구들은 경찰이 찾아와 무엇을 하는지 몰라 다 돌아갔다. 경찰은 그 중 한 친구를 붙잡고 신분증을 보자고 하였다. 친구는 가소롭게 여겨져 《친구 집에 오면서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데 있어요?》 라고 되물었다.

친구가 간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세 명의 경찰이 무작정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김명화는 별수 없이 그들도 방에 들여놓았다. 이 몇 사람은 집에 들어온 후 일부 정황을 물어보고 나서 김명화를 핍박하여 빨리 이사하라고 하였다. 김명화는 《그럼 당신들은 나더러 어데로 가란 말인가요?》 라고 물었다.

이때 다른 방에 있던 어린 설매는 언녕 이 돌발적인 상황에 병이 발작하여 겨울에 입는 솜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신을 신고 위급상황에 대처할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후에 광기가 발작하여 경찰들을 문밖으로 쫓아내었다.

그 후부터 병세는 더욱 엄중해졌는데 보살펴주는 어머니마저도 알아보지 못하였다. 하여 앞에서 이야기 한 가슴 아픈 사연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날부터

가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줄곧 가지 않고 죽어 라고 문을 두드렸다. 김명화는 별수 없어 경찰에게 《들어올 수는 있는데 나의 딸애가 당신을 보게 하지는 말아요, 애를 놀래 서는 안돼요.》 라고 하였다. 김명화를 도와 아이를 돌보던 친구들은 경찰이 찾아와 무엇을 하는지 몰라 다 돌아갔다. 경찰은 그 중 한 친구를 붙잡고 신분증을 보자고 하였다. 친구는 가소롭게 여겨져 《친구 집에 오면서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데 있어요?》 라고 되물었다.

친구가 간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세 명의 경찰이 무작정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김명화는 별수 없이 그들도 방에 들여놓았다. 이 몇 사람은 집에 들어온 후 일부 정황을 물어보고 나서 김명화를 핍박하여 빨리 이사하라고 하였다. 김명화는 《그럼 당신들은 나더러 어데로 가란 말인가요?》 라고 물었다.

이때 다른 방에 있던 어린 설매는 언녕 이 돌발적인 상황에 병이 발작하여 겨울에 입는 솜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신을 신고 위급상황에 대처할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후에 광기가 발작하여 경찰들을 문밖으로 쫓아내었다.

그 후부터 병세는 더욱 엄중해졌는데 보살펴주는 어머니마저도 알아보지 못하였다. 하여 앞에서 이야기 한 가슴 아픈 사연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날부터

설매는 더 이상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며 경상적으로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을 보살펴주는 친척, 친구들을 때렸는데 그녀의 눈에는 그들 모두가 자기 어머니를 붙잡으려는 경찰로 보였던 것이다. 김명화는 지금 날마다 눈물로 얼굴을 씻고 있으며 하루가 일년과도 같다.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던 말인가. 그녀는 다만 진, 선, 인 을 굳게 믿었을 뿐인데 중공이 무엇 때문에 그녀를 절망의 길로 내몬단 말인가?

고아에 과부어머니, 눈물만 남은 어머니와 미친 딸, 이 인간의 참극이 언제쯤이면 끝날 것인가? 과거와 현재 김명화 일가에 고통을 가져다 준 사람들이며, 당신들이 이 문장을 볼 때 당신에게 아직 남아있는 그 한 오리의 양지를 불러 일으킬수 있겠는가? 자신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의식할 수 있는가? 또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는 않는가?

## 왕청현 국보악경들이 리문지를 불법로동교양 시키다

【명혜망】 왕청현 국보대대 악경들은 4 월 18 일 대법제자 리문지(李文智)를 납치하여 흑형으로 박해하였으며 집을 불법 수색하였다. 악경들은 그 어떤

설매는 더 이상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며 경상적으로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을 보살펴주는 친척, 친구들을 때렸는데 그녀의 눈에는 그들 모두가 자기 어머니를 붙잡으려는 경찰로 보였던 것이다. 김명화는 지금 날마다 눈물로 얼굴을 씻고 있으며 하루가 일년과도 같다.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던 말인가. 그녀는 다만 진, 선, 인 을 굳게 믿었을 뿐인데 중공이 무엇 때문에 그녀를 절망의 길로 내몬단 말인가?

고아에 과부어머니, 눈물만 남은 어머니와 미친 딸, 이 인간의 참극이 언제쯤이면 끝날 것인가? 과거와 현재 김명화 일가에 고통을 가져다 준 사람들이며, 당신들이 이 문장을 볼 때 당신에게 아직 남아있는 그 한 오리의 양지를 불러 일으킬수 있겠는가? 자신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의식할 수 있는가? 또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는 않는가?

## 왕청현 국보악경들이 리문지를 불법로동교양 시키다

【명혜망】 왕청현 국보대대 악경들은 4 월 18 일 대법제자 리문지(李文智)를 납치하여 흑형으로 박해하였으며 집을 불법 수색하였다. 악경들은 그 어떤

